

『俚諺四叢』에 반영된 조선인의 운율 의식과 전승에 대한 고찰*

박경우**

- 차례 -

1. 들어가며
2. 예비적 검토
3. 『俚諺四叢』에 나타난 운율 현상과 전승
 - 1) 『俚諺四叢』의 운율론적 가치
 - 2) 〈俗諺三類〉의 운율 양상 분석
 - 3) 〈譬言託類〉의 운율 현상 분석
 - 4) 속담 운율 전승의 일말
4. 나오며

[국문 초록]

본고는 1911년 향촌 학자에 의해 작성된 언어자료집인 『俚諺四叢』을 대상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3572)

**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schoolpark@hanmail.net

로 어휘병렬과 속담 배열에 나타난 조선인의 운율 의식을 탐구하고 이를 전통 시가와 초기 현대시의 운율과의 연관성 유무를 조사한 것이다. 연구 대상 자료들의 모든 운율 현상을 분석한 결과, 어휘 수집 항목에서는 모두 총 19종으로 파악된 다양한 운율 형태들이 검출되었고, 속담 수집 항목에서는 총 102종의 운율 패턴이 조사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런 운율 현상이 속담에서 전통시가인 가사, 그리고 초창기 현대시로 이어지고 있음을 논증하여, 초기 현대시 역시 민중들의 언어 생활 속 운율감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고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 한국의 시에 나타나는 운율이 서양의 율격론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조선인 언중들의 언어생활에서 연유한 것임을 강조했다.

주제어 : 문학적 관습, 속담, 운율, 음수율, 음보율

1. 들어가며

우리 시의 운율론은 분명 외래 율격론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 시가의 운율을 규명하고자 했던 1920년대 우리 문학 연구자들의 고민은 과연 조선의 운율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김억이나 이광수 등이 당시 신문에 게재했던 논문들은 고전시가와 근대 시가와와의 접점을 찾고 자생적인 운율론을 세우는 데에 그 의도가 있었으나, ‘아무래도 우리 시의 운율을 알 수 없었’다는 김억의 고백처럼 조선 조 시가에서 명확한 운율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문학에서 중국의 근체시나 일본의 와카와 같은 규범적인 질서를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운율의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은 자명한 바 그 운율 의식의 구현체를 찾아내는 것은 자생적 운율론 성립의 필수 조건이었다. 그러나 그런 자료의 실체 즉 『俚諺四叢』가 학계에 발표되기까지

무려 60여 년을 더 기다려야 했고, 그것이 지닌 율격론적 가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시도되지 않은 상태이다.¹⁾ 그런 점에서 『俚諺四叢』이 가지는 연구 가치는 매우 크며 특히 자생적 운율론 개진 가능성에 대한 큰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연구 테마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俚諺四叢』에 나타난 운율 현상과 동시대 시가와와의 운율 패턴 공유 현상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조선인의 운율 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자료에 나타난 운율 현상을 운(韻) 층위 율격과 율(律) 층위 율격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주지하다시피 한시 작시 원리를 문학적 관습으로 삼았던 조선인들에게 운을 맞추는 것은 시를 쓰는 것의 기본 개념이었고 『俚諺四叢』의 작자인 樵隱 역시 그런 문학적 관습을 조선어 자료 배열에 적용한 것이다. 또한 5言과 7言처럼 글자수에 대한 제약 의식도 한시로부터 말미암은 바, 『俚諺四叢』에서 보이는 음수율적 요소에 대해서도 정리한다.

다음으로 20세기 초에 저술된 『俚諺四叢』이 1920-30년대의 초기 현대시와 어떠한 운율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김억이 1925년 4월에 『조선문단』에 연재하기 시작한 <詩作法>에서 언급한 바처럼 “구준 짬을 흘니면서도 朝鮮의 詩形은 말할 수가 업”을 정도로 당시 시인들은 전통적 운율과 자신들이 창작하는 자유시율 간의 맥락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俚諺四叢』에는 조선인에 의해 전통적 시 운율과 작가 개인의 창조적 운율 창조가 시도되었다는 근거가 분명히 남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俚諺四叢』의 운율론적 함의를 충분히 밝히는 것이다. 이 자료가 속담이나 방언학에서만 언급되는 것을 넘어 작가가 원래 의도하였던 조선어의 운율적 배열에 초점을 두어 당시 조선인에게

1) 그런 점에서 『俚諺四叢』이 가지는 연구 가치는 매우 크며 특히 자생적 운율론 개진 가능성에 대한 큰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연구 테마라고 할 수 있다.

는 어떤 율격 의식이 내재해 있었던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음수율이냐 음보율, 음위율에 대한 의식이 속담의 운율 기제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俚諺四叢』이 그 이전 시기의 시가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율격 제 현상을 수렴한 것이라면, 그것이 고전 시가와 가지는 운율론적 공통소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적인 운율이 20세기 초의 현대시에 어떻게 접맥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겠다.²⁾

2. 예비적 검토

『俚諺四叢』은 1911년에 향촌 한학자인 초은이라는 분이 조선시대의 언어자료를 수집하여³⁾ 운율적 양식에 집대성한 것으로서 최초 발견자인 최범훈 교수가 1984년 『한국문화』 창간호에 소개한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속담과 방언에 주목하여 수집 언어자료가 저자의 의도에 따라

2) 현대시의 운율에 대해서는 박자(서우석), 강약(정병욱), 장단(성기욱), 고저(김석연), 음보(김대행, 조창환), 음수(오세영) 등 어느 한 가지자질을 바탕으로 논자마다 각기 다른 이론을 펼쳐왔다. (권혁웅, 「한국 현대시의 운율 연구」, 민족어문학회, 『어문논집』 57집, 2008, 234-235면 참조) 하나의 율격 자질로 모든 한국시의 율격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많은 추단과 억측을 낳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말의 특성 상 우리 시가에는 압운이 없다고 주장(김대행)한 것은 논자의 음보율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의 압운 전통과 압운 의식의 존재조차 부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리언사총』에는 두운과 각운이 두루 활용된 속담쌍과 어휘쌍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전통 운율의식 속에 이미 압운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음보, 음수 등 기타 운율 자질들과 다양한 결합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현대시의 운율론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보다는 실제 언중들의 구어 생활에서 발견되고 있던 운율 현상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미 우리 전통 시가나 구어에 녹아 있었던 운율 요소들을 현대 시인들의 작품과 어떻게 연결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초기 현대 시인들 역시 19세기 말- 20세기 초 조선어의 구어 전통 속에 있다는 점은 논의의 전제가 될 것이다.

3) 『俚諺四叢』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보면, 음운론적으로 경기도와 황해도를 비롯한 중부방언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김동인, 『리언사총(俚諺四叢)』과 19세기 후기 황해도 방언), 한국어학회, 한국어학 25, 2004, 124면). 하지만 속담의 관용어적 성격과 서울을 비롯한 다양한 지명과 물명이 『리언사총』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특정 지역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 그 표현이나 모양이 조금씩 달라져 원모습에서 이탈하였다고 보았는데, 이는 저자의 특별한 운율적 자료 배열 때문이었다. 바로 이러한 편집자의 욕구를 꺾어 하나의 예술품으로 만들려는 노력에서 19-20세기 초 민중들의 언어생활에 녹아있는 말에 대한 리듬 의식 즉 운율 의식을 살펴 볼 수 있다.

『俚諺四叢』은 우리의 전통적인 운율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을 속담집으로만 규정해왔다. 집필 당대의 조선어 자료를 크게 4가지로 분류했노라는 그 제명에 담긴 뜻만 큼이나 『俚諺四叢』에는 당대의 속담과 어휘, 방언, 노래문학 등 조선어의 다양한 자료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자료 기록 방식이 조선 후기 歌辭의 사설 배열 방식을 따르고 있고, 단어들의 짜임에 있어서 두운이나 각운을 매우 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두 짝의 대구를 위해 기존 단어에 의도적으로 변형을 가하고 있어서 조선인의 운율 의식을 볼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俚諺四叢』은 우리말을 그 수사적 특성에 따라 <俗諺三類>, <譬言託類>, <復言同類>, <反言背類>로 4가지로 대분류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자신의 인생철학과 지식을 정리한 <葛山閑談>과 <勝劣格言>을 뒷부분에 수록하였다. 이중 속담 연구에서 사용한 것은 <譬言託類>와 <葛山閑談>에서의 속담이었다.

『俚諺四叢』과 관련하여 운율론적 관점에서의 선행 연구는 전무하다.⁴⁾ 1984년 최범훈에 의해 이 자료가 학계에 소개된 후 1988년에는 최래옥이 『俚諺四叢』에 기재된 각종 언어 자료 중에서 속담에 한정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국어사적 관점에서 19세기 황해도 방언과의 비교 연구가 기존 연구사이다.

4) 최범훈, 「俚諺四叢」解題, 『韓國文學研究』 1집, 1984; 최래옥, 『리언사총(俚諺四叢)』의 속담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 14집, 1988; 김동언, 앞의 논문.

『俚諺四叢』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제외되어 온 부분은 4개의 대분류 중 <俗諺三類>, <復言配類>, <反言背類> 이다. 먼저 <俗諺三類>는 속담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두 단어 묶음이나 네 단어 묶음이 아니라 세 단어 묶음으로 당대의 속담을 정리한 <俗諺三類>(예: 天子太子皇子, 눈초리귀초리머리초리 등)는 일반 언중들의 속담 사용과는 거리가 있는 매우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기존의 속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것이다. <俗諺三類>에 대한 설명에서 마치 ‘品’자와 같이 세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글자를 이루는 방식을 적용한 것은 구술 언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것이다. 문어에서는 종이 위에 문자가 기록되는 것을 전제로 시각적 질서가 운율을 통어하게 되는데, 『俚諺四叢』의 <俗諺三類>의 품(品)자형 배열은 문어적 운율 의식의 반영이며 동시에 창의적 운율 방식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속담을 비롯하여 우리의 시조, 가사에서의 운율이 구어적 관습에 기반하고 있고, 기억의 전승을 위해 이를 두 개의 맞짝을 이용하거나 그것이 배수인 4개 단위의 배열을 이용하게 마련이다. 우리말 속담의 기본 형태(basic form)는 그 길이가 4語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술로 전승되었던 시조나 가사의 경우에는 한 호흡에 읽을 수 있는 단위이며 시의 형태로 전환했을 때는 두 개의 작은 호흡과 4개의 어절을 지닐 수 있다.⁵⁾ 이런 구어적 관습에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 바로 <俗諺三類>의 3단위의 통합 배열 방식인데 이는 분명히 문어적 배열이라고 볼 수 있다.

<復言配類> 역시 속담 연구에서는 제외된 부분인데, 이는 단어의 수집과 배열이 속담 차원이 아니라 언어학적 차원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당대 조선어 중에서 같은 자,모음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만 선별해서 기재하였기 때문에는 이를 순수한 언어학적 또는 사전학적 성취라고

보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俚諺四叢』이 가지는 운율학적 가치와 조선인의 운율 의식의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復言配類>이 지니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책의 특성과 체제의 통일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反言背類>가 기존 속담연구에서 제외된 것은 역설적이며 모순적인 단어의 배열만으로 이루어진 항목이며 속담에 준하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은 황소’, ‘나많은 상좌(나이 많은 상좌)’ 등의 표현은 일상어에서 수집자가 찾은 모순형용의 사례들이다.

그러나 『俚諺四叢』을 단순히 속담집이나 방언집으로 보면, 작가가 각종 언어 자료들을 운율에 맞추어 체계화해 내려고 했던 노력과 그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는 주목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조선어를 두운이나 각운에 맞추어서 일관된 운율 체계로 정리하거나, 기존의 독립적 속담을 두 개씩 짝으로 모아 운율적으로 대구가 되도록 정리한 점 그리고 운율을 위해 새로운 어휘까지 만들면서까지 운율 맞추기에 초점을 둔 사례들은 지금까지의 어떤 조선어 수집가도 시도하지 않은 것들이다. 특히 이 자료의 생산 연대가 아직 서구 학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던 20세기 초이며, 작가인 초운이 서문에서 자신은 오랫동안 과거 시험을 준비했다고 한 점과 수집된 조선어가 사실상 19세기 후반에 쓰이던 각종 어휘와 속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양의 운율론에 어떠한 영향도 받은 적이 없는 전통 학문에 정통했던 조선인이 19세기까지 사용되었던 당대의 조선어를 조선인의 운율 의식으로 새롭게 배열하고 조직하였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5) 한 속담의 구성은 4어절로 된 것이 가장 많으며(29%), 절반 이상의 속담이 3-4어절로 되어 있다. 단순한 산술적 평균 길이로 계산할 때 하나의 속담은 10.6음절이고, 어절의 수는 4.4가 된다. 趙載潤, 『韓國俗談의 構造分析研究』, 高麗大 博論, 1988, 126면.

3. 『俚諺四叢』에 나타난 운율 현상과 전승

3.1. 『俚諺四叢』의 운율론적 가치⁶⁾

『俚諺四叢』에는 조선인의 운율 의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경화 되어 나타나 있다. 먼저 가사(歌辭)의 사설 배열 방식인 안짜과 바깥짜으로 두 줄을 맞짜으로 하되 운율을 맞추어 대구로 삼은 것이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다.

못된바람은슈구문으로드러오구
못된송아지영덩이에서썰이나지

물에물분듯
술에술분듯

다음으로는 운(韻)을 이용하여 단어들을 배열하고, 더 나아가 단어들 간의 위계까지 설정하기도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俗諺三類>는 이 항목자체가 3개의 단어를 한 줄로 만들되, 앞의 2개 단어가 마지막 1개 단어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울지안울지잠오지
눈오네잘오네더오네

6) 제명의 '俚'를 '리'로 읽을 것인지, '이'로 읽을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대 국어의 두음법칙을 적용하자면 당연히 '이언사총'으로 읽어야 하지만, 이 속담집 속에서는 어두 '리'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량식(糧食), 리어(鯉), 령감(令監), 류리(琉璃), 령(令), 리질(痢疾), 룡(龍))이 많다.(김동언, 앞의 논문, 136면 참고)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속담집의 편자가 책의 제명을 '리언사총'으로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리언사총'으로 쓰고자 한다.

얼중알중동량중
빈손찬손乞客손

人行人倫人於事
此倫彼倫都五倫

특히 이러한 배열은 기존의 언어를 작가가 창의적으로 재조직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미 속담이나 구어로 굳어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민중들의 구어로 떠돌았던 표현들을 작가가 일정한 율격적 틀을 적용하고 내용적 상사점을 포착하여 이를 새로운 창작물로 만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율격적 틀이 『俚諺四叢』 전체에 빠짐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

또한 모음의 변화를 이용한 음상의 변화를 운율적 배열에 이용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 심지어는 율격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어휘의 창조 흔적도 발견된다. 전자의 예로는 '홀죽홀죽홀죽/오죽우죽우죽'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엄송이도 세고 밤송이도 셋지'를 들 수 있다. 엄나무는 가지에 가시가 있고, 밤나무에 송이에 가시 있는 것인데, 엄나무에 있지도 않은 '-송이'로 똑같은 음상을 구현하고자 '엄송이'라고 한 것이다.

단순히 언어 자료의 재배열에서 그치지 않고 <勝劣格言>에서는 가사체의 운율을 이용하면서도 기존의 가사와 달리 많은 속담들을 병렬시키며 사설을 이어나가다가 마지막에 교육, 도덕, 효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며 끝을 맺고 있어서 고전시가에서의 관습적 운율 현상과 『俚諺四叢』에서의 작가의 창조적 운율 현상이 공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리언사총』의 운율 현상은 작가가 당대 언어를 수집·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운과 맺구를 맞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언어 조합과 배열

그리고 생산에 관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俚諺四叢』 저술에 있어서 최상위 배열 원리는 단순한 언어 자료의 수집이 아니라, 창조적 운율을 적용한 언어미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시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한국의 현대시가 작가의 개성적인 운율을 바탕으로 창작되어 왔으며 그 운율적 기저를 민요 등 고전시가에서 찾았던 바, 『俚諺四叢』에서 보여주는 관습적 운율을 바탕으로 한 개성적인 운율 배열은 고전시가에서의 운율이 민요에서처럼 집단적이며 관습적으로만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창조적 재조직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대시의 자유율이 고전시가와 단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俚諺四叢』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인들의 운율 의식의 기저에 다양한 율격적 장치들이 내재하고 있었고 이것들이 개인화되며 재조직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운율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에 현대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전통적 율격 장치들의 개인화가 더욱 극대화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⁷⁾

3.2. <俗言三類>의 운율 양상 분석

『리언사총』의 <俗言三類>편은 1910년대 조선에서 쓰이는 어휘들을 주체별로 수집하여 정리한 것으로서⁸⁾, 수집된 어휘를 같은 음소나 음절끼리 묶거나 동일한 음량(음절수)으로 엮어 운율미를 가미하였다. 통사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어휘들을 운율적 장치를 통해 하나의 구로 만든

7)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조선인의 운율 의식과 고전시가와 관련 그리고 현대시로 이어지는 점점 찾기는 이제까지 축적된 한국시가 운율론에 있어서 결락된 지점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의미가 있다.

8) 天道, 地理, 人事, 人倫, 身體, 性情, 動作, 五行, 禮制, 音樂, 衣冠, 書籍, 家宅, 食物, 茶蔬, 用器, 內用, 文房, 藥草, 草木, 耕農, 憂患, 吉凶, 飛禽, 走獸, 魚鱉, 蟄虫, 雜物, 俚言 총 29항

언어유희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속언삼류>의 하위 항목에는 해당 항목을 파자(破字놀이)로 풀이한 설명이 각각 붙어 있는데 어휘에 대한 음성적이며 의미론적 재해석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예컨대 첫항인 天道는 ‘工得巧人之則居 7 首 藏儲鑄比 工成首功’으로 파자한 언어적 유희가 나타나는데, 먼저 ‘天’을 위아래로 나누어 工과 人으로 보고 이를 ‘工이 기교가 좋은 人을 얻고’라고 풀고, ‘道’를 좌우로 나누어 ‘之는 7 首에 거한다’고 했다. 또한 天에 匕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감추었던 녹슨 비수를 장인이 으뜸의 공으로 이루었네’로 풀이하였다. 이 책의 집필 의도가 언어적 유희성에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런 어휘 수집 방식은 매우 희귀한 경우인데 이 책이 단순히 어휘, 방언, 속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인들이 언어와 문학에서 향유하고 있었던 운율을 중심으로 흠어진 구슬을 꿰어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드는 작업을 목적으로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속언삼류>에 수집된 어휘들은 1-3 음절어로서 단어나 구를 이를 뿐 문장을 이루지 않는다. 서로 다른 단어들 같은 운율적 요소로 엮어냄으로서 다른 품사를 병렬하면서도 같은 두운을 적용하거나 같은 품사들을 병렬시키며 같은 각운을 쓰면서도 음절수를 다르게 하는 등 운율미의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속언삼류>의 운율 양상에 대해 ‘음소 단위(유사음)/ 음절 단위(어근, 접사, 조사, 어미)/ 품사의 동일성 여부/ 각운, 두운 여부/ 음절수의 同異(同量/仄量)’ 여부를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분석하였다.

<표1> <俗言三類>에 나타난 운율 요소 분석 결과

연번	적용된 운율 요소	예문
1	동품사/음소 단위 반부(유사음) /각운/동량	홀죽홀죽홀죽 오죽우죽웃죽
2	동품사/음소 단위 반부(유사음) /각운/측량	夫子背子마고子 족기불기감티기

3	동품사/음소 단위 반복(유사음) /두운/동량	키렁쿠렁쿨렁 좌렁치렁출렁
4	동품사/접사/조사 /어미 단위 반복/각운/동량	비올지안올지잠오지 눈오네잘오 네더오네
5	동품사/접사/조사 /어미 단위 반복/각운/측량	올비갈비가물비 큰눈썹눈겨울눈
6	동품사/접사/조사 /어미 단위 반복/두운/동량	그뫼山脈 그쌍土色
7	동품사/어근 반복/각운/동량	귀구녕눈구녕코구녕 비구녕밋구 녕신구녕
8	동품사/어근 반복/각운/측량	눈알종알불알 살짝불씩불기씩
9	동품사/어근 반복/두운/동량	判敦判中判書 參判參議參奉
10	동품사/어근 반복/두운/측량	節文節用節人事 無瑣無煩無駁雜
11	이품사 혼합/음소 단위 반복(유사음) /각운/동량	부억죽억벌억 구석명석덜석
12	이품사 혼합/음소 단위 반복(유사음) /각운/측량	한히두히무엇히 가을겨을늘결을
13	이품사 혼합/음소 단위 반복(유사음) /두운/동량	掩身俺頭俺## 儉素儉薄禁奢值
14	이품사 혼합/음소 단위 반복(유사음) /두운/측량	燧人樹鑽遂生火 最緊最貴炒火物
15	이품사 혼합/접사/조사 /어미 단위 반복/각운/동량	美利堅所聞見最先見 英吉利得地 利是大利
16	이품사 혼합/접사/조사 /어미 단위 반복/각운/측량	입구먹구일허구 식기쓰기니장기

17	이품사 혼합/어근 반복/각운/동량	논고랑골부랑권고랑 밭담불반디 불지논불
18	이품사 혼합/어근 반복/각운/측량	寒露절로다씨로 冬至薦之잘먹지
19	이품사 혼합/어근 반복/두운/측량	嘉儀嘉善嘉其政 通政通訓通國事

총 19종으로 파악된 다양한 운율 형태들은 시조와 가사 등 전통 시가에서는 물론이고 1920년-30년대의 초기 현대시에서도 유사성이 발견된다.

넣을 것 없어 걱정이던 호주머니는,
겨울만 되면 주먹 두 개 **갑북갑북**
<호주머니>(윤동주, 1936년 추정)

삼수갑산 **가고지고**
삼수갑산 **보고지고**
아하 원수로다 외론 꿈만 **오락가락**.
<삼수갑산>(김억, 1893 - ?)

비올지안올지잠오지 눈오네잘오네더오네
한히두히무엇히 가을겨을늘결을
<속언삼류>

<속언삼류>에 수집된 어휘들은 시문학 텍스트의 문장 단위에 나타나 는 보다 다양한 운율 방식을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3개

의 단어를 주제와 운율적 유사성으로 엮은 것이기 때문에 보다 긴 문장에서 나타나는 운율이 제대로 적용될 수 없었다. 하지만 '3개의 단어(속언)를 하나의 유개념으로 묶는' 단어 배열 방식을 최상위 규칙으로 했다는 것에서 우리 언어에 개성적인 규칙을 부여해 운율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3. <譬言託類>의 운율 현상 분석

<譬言託類>에서는 속담들을 주제별로 수집하고⁹⁾ 안팎과 바깥쪽으로 대응되도록 엮었는데 이는 시행의 단위에 준하며 시문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장 차원의 다양한 운율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리언사총』을 단순한 속담집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기존의 속담들을 2개씩 엮어 복합문으로 만들고 그 2개의 속담이 하나의 운율로 읽히도록 했다는 점 때문이다. 작가가 원속담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개변하면서까지 운율미를 드러내려 한 것은 자신의 저작을 단순한 어휘 수집책이 아닌 문학 서적으로 격상하려고 했던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듯하다.

<비언탁류>의 운율 현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일반에 나타나는 음보율, 음수율, 음위율을 기준으로 동일한 음소·음절(어휘의 부분)·문법요소(접사, 조사, 어미)의 반복, 그 반복의 위치(句乃/句間) 그리고 문형 구조(동일 구조의 반복/ 종속적 연결 구조/ 대등적 연결 구조)를 운율 요소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음보, 길이, 위치, 문형, 구조, 반복 요소, 반복 위치를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모두 216개가 나타나지만, <비언탁류>의 경우는 모두 102개의 유형만 검출되었다.

9) <天道, 地理, 人事, 人倫, 僧服, 家宅, 身體, 穀物, 性情, 依伏, 雜物, 五行, 草木, 言辭, 癡漢, 生死, 走獸, 飛禽, 昆蟲, 魚鱉> 20개항

<표2> 운율 요소 분석 기준

음보	길이	위치	문형 구조	반복 요소	반복 위치
音步律 有	音量律 有	韻位律 有	同一 構造	音素 單位 反復	句內 反復
音步律 無	音量律 無	韻位律 無	從屬的 連結 構造	音節 單位 反復	句間 反復
			對等的 連結 構造	接辭/助辭/語尾 單位 反復	句內 句間 反復

<비언탁류>에서는 두 개의 속담을 병렬시키며 하나의 문장처럼 연결했는데, 본고에서는 각 속담을 하나의 구(句) 단위로 정의하고, 두 개의 구가 모여 하나의 율문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하나의 율문에는 2개의 속담구가 있고, 그 속담구들은 대등적, 종속적 관계로 연결되거나 같은 구조를 단순 병렬되는 양상을 보이고, 전체를 통어하는 상위의 율격은 음수율, 음보율, 음위율이며 이는 2개의 속담구에 공통으로 나타나 하나의 율문의 형성하는 원리가 된다. 그 분석 결과를 보이면 아래 표와 같다.

<표3> <譬言託類>에 나타난 운율 요소 분석 결과

연번	적용된 운율 유형	예시
1	音步律/音量律/韻位律/同一 構造/音素 單位 反復/句內 反復	빛니씨구 빈니밀기 노롬ㅎ다 세씨기 지
2	音步律/音量律/韻位律/同一 構造/音素 單位 反復/句間 反復	게어른 선비 칙장 넝기듯 /모르는 아희 업어 쥬기지
3	音步律/音量律/韻位律/同一 構造 /音素 單位 反復/句內 句間 反復	돈한푼에 썬는 상 안준다구 우는 상
4	音步律/音量律/韻位律/同一 構造/音節 單位 反復/句內 反復	문닷구 보나 열구 보나 보기는 일반 이지

5	音步律/音量律/韻位律/同一構造/音節單位反復/句間反復	메구 나면 상두군 들구 나면 초롱군
6	音步律/音量律/韻位律/同一構造/音節單位反復/句內句間反復	물에 물 분 듯 술에 술 분 듯
7	音步律/音量律/韻位律/同一構造/接辭/助辭/語尾單位反復/句內反復	뉘덕으로 사나 니복으로 사지
8	音步律/音量律/韻位律/同一構造/接辭/助辭/語尾單位反復/句間反復	나제 남본 듯 밤에 임본 듯
9	音步律/音量律/韻位律/同一構造/接辭/助辭/語尾單位反復/句內句間反復	하날을 보아야 별을 짜구 임을 보아야 이를 비지 물 위에 기름이요 디히에 부평이지
10	音步律/音量律/韻位律/從屬的連結構造/音素單位反復/句內句間反復	자라보구 놀넌 가슴 소딩보구 쫓 놀 나네
11	音步律/音量律/韻位律/從屬的連結構造/音節單位反復/句內反復	니낭청 두루막이 디답이요/ 이리히 두 에 저리히두 예지
12	音步律/音量律/韻位律/從屬的連結構造/接辭/助辭/語尾單位反復/句內反復	함박족박 드니치며 드나들며 야단일네
13	音步律/音量律/韻位律/從屬的連結構造/接辭/助辭/語尾單位反復/句內句間反復	음지가 양지되구 양지가 음지되지/ 벽히가 상전되고 상전이벽히되네
14	音步律/音量律/韻位律/對等的連結構造/音素單位反復/句內反復	병जू고 약जू구/ 꼬디기도 말니지
15	音步律/音量律/韻位律/對等的連結構造/音素單位反復/句間反復	청령소리 겁이나구 곤장소리 기가나지
16	音步律/音量律/韻位律/對等的連結構造/音素單位反復/句內句間反復	요지일월이요 순지건곤인가

17	音步律/音量律/韻位律/對等的連結構造/音節單位反復/句內反復	남의 발에 신발이요 남 눈 똥에 물너 안씨
18	音步律/音量律/韻位律/對等的連結構造/音節單位反復/句間反復	못된 바람은 슈구멍으로 드러오구/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썰이나지
19	音步律/音量律/韻位律/對等的連結構造/音節單位反復/句內句間反復	눈살이 콧끗하구/어안이 병병하지
20	音步律/音量律/韻位律/對等的連結構造/接辭/助辭/語尾單位反復/句內反復	이빈녀인 산족차기 호박등에 말둑박기
21	音步律/音量律/韻位律/對等的連結構造/接辭/助辭/語尾單位反復/句間反復	뉘 령이라 거스르며 뉘 분부라 거역 흘사
22	音步律/音量律/韻位律/對等的連結構造/接辭/助辭/語尾單位反復/句內句間反復	구경이 곡경이요 호강이 요강이지
23	音步律/音量律/同一構造/音素單位反復/句內反復	썸하라면 술먹기와 세간치랴 트집하기
24	音步律/音量律/同一構造/音素單位反復/句內句間反復	전실자식 조석जू듯 비렁방이 동량जू 듯
25	音步律/音量律/對等的連結構造/接辭/助辭/語尾單位反復/句間反復	업어온 증이요 불너온 판슈지
26	音步律/韻位律/同一構造/音素單位反復/句內反復	쇠코에 짬나듯 가물에 콩나듯/ 증 고기 먹듯 가물에 비오듯
27	音步律/韻位律/同一構造/音素單位反復/句間反復	하날이 내려다 보구 신명이 도라 보 지 시시덕이 지를 넘고 시침덕이 골노 씩지지
28	音步律/韻位律/同一構造/音素單位反復/句內句間反復	셔술이 목셔술 갖구 세가 장지 갖지
29	音步律/韻位律/同一構造/音節單位反復/句內反復	원사리고 공사리고 머슴사리고 상사 리지
30	音步律/韻位律/同一構造/音節單位反復/句間反復	물이 가야 비가오구 구름이 씨여야 비가오지

31	音步律/韻位律/同一 構造/音節 單位 反復/句內 句間 反復	쥐가 궁글찰지 궁기 쥐를 찾나/ 풀 무가 슯출부지 슯치 풀무를 부나
32	音步律/韻位律/同一 構造/接辭/ 助辭/語尾 單位 反復/句內 反復	먹는 데는 계눈감추기요 담비에 는 룡귀썰이지
33	音步律/韻位律/同一 構造/接辭/ 助辭/語尾 單位 反復/句間 反復	하날이 문어져도 솟아날 궁근 있고/ 종가가 망히도 향로합은 나마갯지 사람은 머리벗터 가구/ 송곳촌 슯 벗터 드러가지
34	音步律/韻位律/同一 構造/接辭/ 助辭/語尾 單位 反復/句內 句間 反復	말인가 솔인가 일인가 작난인가
35	音步律/韻位律/從屬的 連結 構造/ 音素 單位 反復/句內 反復	덕담도 여러번흐면 악담되구/ 칙망 도 너무흐면 원망된다
36	音步律/韻位律/從屬的 連結 構造/ 音素 單位 反復/句內 句間 反復	소금장수가 지나가도 짜단 말은 말 고/ 니가 물어도 가렴단 말은 마지
37	音步律/韻位律/從屬的 連結 構造/ 音節 單位 反復/句內 反復	이흥 저흥 보다 못히 동니방니 찌드 러니네
38	音步律/韻位律/從屬的 連結 構造/ 音節 單位 反復/句間 反復	괴눈갯튼 양주술에 외씨갯튼 니밥 먹었지
39	音步律/韻位律/從屬的 連結 構造/ 音節 單位 反復/句內 句間 反復	이는 하날에 눈이 올씨 비가 올씨/ 하날 일과 낭반에 일 물을게지
40	音步律/韻位律/從屬的 連結 構造/ 接辭/助辭/語尾 單位 反復/ 句內 反復	승천입지히고 상통천문히고 하달지 리히는 지쥬가졌나?
41	音步律/韻位律/從屬的 連結 構造/ 接辭/助辭/語尾 單位 反復/ 句間 反復	사돈집과 통슈간은 멀슈록 조코/ 항 우와 장비는 낙상홀슈록 좇치
42	音步律/韻位律/對等的 連結 構造/ 音素 單位 反復/句內 反復	밭 팔아라 논팔아라 너 못흐면 니 흐지
43	音步律/韻位律/對等的 連結 構造/ 音素 單位 反復/句間 反復	엄송이도 씨고 밤송이도 썰지
44	音步律/韻位律/對等的 連結 構造/ 音素 單位 反復/句內 句間 反復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발이 쌍에 붓지안케 가지
45	音步律/韻位律/對等的 連結 構造/ 音節 單位 反復/句內 反復	불에 썩진 족제비요 비미진 룡디 기지
46	音步律/韻位律/對等的 連結 構造/ 音節 單位 反復/句間 反復	아비 귀에 혼말은 나두/ 쇠귀에 혼 말은 아나나지

47	音步律/韻位律/對等的 連結 構造/ 音節 單位 反復/句內 句間 反復	미암이가 궁병이적을 모로고/ 쇠 리가 콩식적을 모로지
48	音步律/韻位律/對等的 連結 構造/ 接辭/助辭/語尾 單位 反復/ 句內 反復	계두 구력두 일코/ 집두 절두 업지
49	音步律/韻位律/對等的 連結 構造/ 接辭/助辭/語尾 單位 反復/ 句間 反復	하날이 돈씩만 흐구 남디문이 계구 력만 흐지 자식에 속엔 호랑이가 드러안졌구 부모에 속에는 부처가 안졌지
50	音步律/韻位律/對等的 連結 構造/ 接辭/助辭/語尾 單位 反復/ 句內 句間 反復	쌍을 열길을 파두 시흰찬코/ 머리를 복복 글거도 시흰찬치
51	音步律/同一 構造/音素 單位 反 復/句內 反復	은혜가 원슈되구 초면에 정이드지
52	音步律/同一 構造/音素 單位 反 復/句間 反復	앗가가 옛적ियो 어제가 티고지
53	音步律/同一 構造/音素 單位 反 復/句內 句間 反復	불복듯 달달복구 물퍼붓듯 퍼지 지
54	音步律/同一 構造/音節 單位 反 復/句內 反復	니가 만만흐나 우박을 우왜쥬어
55	音步律/同一 構造/音節 單位 反 復/句間 反復	후레쌍강아지 아들이요 인사불성에 아들이지
56	音步律/同一 構造/音節 單位 反 復/句內 句間 反復	아비가 그르면 자식이 담는법ियो/ 웃물이 흐리면 아리물도 흐리지
57	音步律/同一 構造/接辭/助辭/語 尾 單位 反復/句內 反復	안히업는 처가요 불업는 화로요/ 중 에 얼에빚시오 7발에 편자이지
58	音步律/同一 構造/接辭/助辭/語 尾 單位 反復/句間 反復	아비를 못만나면 신슈가 괴힘흐고/ 니외가 잘못만나면 평싱 원슈지
59	音步律/從屬的 連結 構造/音素 單位 反復/句內 反復	등살이 쏙쏙혀 안팎 곱셔등이지
60	音步律/從屬的 連結 構造/音節 單位 反復/句內 反復	고리등갯튼 기와집에 옥갯튼 니납을 먹네
61	音步律/從屬的 連結 構造/音節 單位 反復/句間 反復	네자랑 고만히라 자랑 슯희 불붓는 다
62	音步律/對等的 連結 構造/音素 單位 反復/句內 反復	썰 썩 쇠상이요/ 쥬먹마진 감투지

63	音步律/對等的 連結 構造/音素 單位 反復/句間 反復	무자식이 상팔자요 무지주가 복이만 치
64	音步律/對等的 連結 構造/音素 單位 反復/句內 句間 反復	엇던 스람 팔자조아 호의호식 잘사 는데/ 나는 엇지 궁박하여 집한구석 업단말가
65	音步律/對等的 連結 構造/音節 單位 反復/句間 反復	술먹은 병어리요 /짓지 못하는 삽사 리지
66	音步律/對等的 連結 構造/音節 單位 反復/句內 句間 反復	리어가 썩니사 망동이도 썩고/ 상전 이 말타니사 종두 말타자네
67	音步律/對等的 連結 構造/接辭/ 助辭/語尾 單位 反復/句間 反復	바날이 나발되구 방귀자라 쏩이되지
68	音步律/對等的 連結 構造/接辭/ 助辭/語尾 單位 反復/句內 句間 反復	호미로 막을 거슬 가리로 막구 / 한 첩에 나을 병이 한 제도 부족이지
69	音量律/同一 構造/接辭/助辭/語 尾 單位 反復/句間 反復	증에 음양 맛보듯 첫날밤의 임맛보 듯
70	音量律/對等的 連結 構造/接辭/ 助辭/語尾 單位 反復/句內 句間 反復	나는 히두 너는 말구 나는 뒤히두 너 는 뒤히라
71	韻位律/同一 構造/音素 單位 反 復/句內 反復	우왜져리 골골하나 알적에 골지
72	韻位律/同一 構造/音素 單位 反 復/句間 反復	남의 미천은 크다구 부지씨로 찢으 고/ 남의 말은 식은 죽 먹듯하지
73	韻位律/同一 構造/音節 單位 反 復/句間 反復	호령이 셔리갓구 원망이 비발치듯하 지
74	韻位律/同一 構造/接辭/助辭/語 尾 單位 反復/句間 反復	한량업시 성 파기요/ 가난한집 량식 디가지
75	韻位律/從屬的 連結 構造/音節 單位 反復/句內 反復	남의일에 밧벗구 니닷기 남의숨에 정장아갓지
76	韻位律/從屬的 連結 構造/音節 單位 反復/句間 反復	눈에서 쌍심지가 나구/ 눈씨를 막 디는 저마다 잇지
77	韻位律/對等的 連結 構造/音素 單位 反復/句內 反復	그런 입은 숨남으로 두르지/ 말을 히두 유복한 말을 하지
78	韻位律/對等的 連結 構造/音素 單位 反復/句間 反復	가을에 못지닌 승제 봄에 지니 사라 셔 못한 일을 죽어서 히
79	韻位律/對等的 連結 構造/音素 單位 反復/句內 句間 反復	어제 허더니 오날 쏘 허네 잘한다 잘 한다 너 못하면 니하지

80	韻位律/對等的 連結 構造/音節 單位 反復/句間 反復	명석 말아 디평슈 불고/ 제금으로 최곰불싸 네란 글이 우왜 잇단 말이 냐/ 네가 글을 하면 나는 문장되게
81	韻位律/對等的 連結 構造/接辭/ 助辭/語尾 單位 反復/句間 反復	천동에 기 썩여 오르듯하고 초상 상 제 제청에 오르듯하지
82	同一 構造/音素 單位 反復/句內 反復	아비 발등불버더 제 발등불버허 쓰 지
83	同一 構造/音素 單位 反復/句間 反復	열계집에 한맛도 업구/ 일 잘하여도 칭찬업지
84	同一 構造/音素 單位 反復/句內 句間 反復	급하면 담 썩여 넘나/ 밧부면 바날 허리 미스나
85	同一 構造/音節 單位 反復/句內 反復	셋든 중이나 안셋든 중이나 일반이 요/ 어른두 한스발 아희두 한스발
86	同一 構造/音節 單位 反復/句內 句間 反復	썩고싼 사향니도 난다구 말한 말소 문 아니날싸
87	同一 構造/接辭/助辭/語尾 單位 反復/句間 反復	집은 타 타두 빈디 죽는 것만 지미잇 고/ 돈은 압만 드러도 시앗 쏘는 것 만 시원하지
88	從屬的 連結 構造/音素 單位 反 復/句內 反復	엿부지 안인 식시가 달밤에 샷갓씨 고 니닷지
89	從屬的 連結 構造/音素 單位 反 復/句內 句間 反復	심흔 직집사리를 하지/ 그 슈동 못 들겐네
90	從屬的 連結 構造/音節 單位 反 復/句內 反復	침을 즐나침을 쥬거든 통지 쥬어
91	從屬的 連結 構造/音節 單位 反 復/句間 反復	참구참구 고만두니사 도둑도둑 더 분을 도두어
92	從屬的 連結 構造/音節 單位 反 復/句內 句間 反復	그 아희 잘두 싱것거니와 무력무력 잘두 자라네
93	從屬的 連結 構造/接辭/助辭/語 尾 單位 反復/句內 反復	열치가 한치되구 하날이 두 쪽에 나 두 니히볼셀
94	從屬的 連結 構造/接辭/助辭/語 尾 單位 反復/句間 反復	한주먹에 평토제를 지니고/ 썸 한번 에 눈에 불이나갓지만
95	從屬的 連結 構造/接辭/助辭/語 尾 單位 反復/句內 句間 反復	미방초시에 초가집 스십간에 외손만 당허라자 무셔왜라
96	對等的 連結 構造/音素 單位 反 復/句內 反復	설상가상이요 명필에 기칠이지

97	對等的 連結 構造/音素 單位 反復/句間 反復	자식을 길너보아야 부모에 공을 알 구/ 천동소리를 들어야 하늘 무서운 줄을 아지
98	對等的 連結 構造/音素 單位 反復/句內 句間 反復	어려죽은 귀신을 어더 붓들 썬나 썰 기는 되우 썰지 아희 보논 디논 물 먹기도 무섭고 / 기 눈에는 쫘만 보 이논 법이지
99	對等的 連結 構造/音節 單位 反復/句內 句間 反復	집지여 습년 시스름 드러와 습년이 요/ 이스히 습년 장스지니 습년이야 말을 조치
100	對等的 連結 構造/接辭/助辭/語尾 單位 反復/句內 反復	원을 흐면 자식바리고 종바리고 말 써지 바린다지
101	對等的 連結 構造/接辭/助辭/語尾 單位 反復/句間 反復	귀허기가 살을 버여먹여도 앓잡지안 치/ 머리털노 신을 삼아도 다 못 갑 겠지
102	對等的 連結 構造/接辭/助辭/語尾 單位 反復/句內 句間 反復	입이 광쥬리 구멍이라도 말을 말구/ 소금장스가 지나가도 짜단말을 말게

3.4. 속담 운율 전승의 일말

<비언탁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운율의 변이형태는 모두 102종이었으며, <속언삼류>에서 나타났던 29종의 운율 현상도 부분적으로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비언탁류>가 시어가 아닌 속담이면서도 조선의 시가 가지고 있었던 음보율, 음수율, 음위율을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수집가의 문학적 역량 덕분이며 근원적으로는 당시 조선인들의 일상 어휘 속에 이미 전통적인 운율 요소가 녹아들어 있었던 것이며 시조나 가사의 운율은 사대부의 순수 창작물이라기보다는 언중들의 언어 생활 특히 속담에 적용되었던 운율 방식이 선택되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초기 현대시 역시 민중들의 언어 생활 속 운율감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①속담

아버가 그르면 자식이 담는법ियो, 옷물이 흐리면 아리물도 흐리지
메구 나면 상두군, 들구 나면 초롱군
못되면 조상에 탓시오, 잘되면 제복이라지
종을 부리라면 종에 종 노르슬 하고, 먼길을 가자면 소두보구 말두보
지 <비언탁류>

②가사

이산저산 피는꽃은 봄이오면 짝이트나 이골저골 長流水는 한번
가면 다시올까<圓寂歌>
드러오면 호통하고 나가면 공경하라 <봉은가>
인가도 히소하고 산천만 겹겹이니 지니면 또 산니요 임하면 또
물이라<봉내곡>
원앙침이 슈노키와 봉황단이 문노키을 나지면 두필이요 밤이면
닷섯가지<복선화음곡>
요지연이 좋다해도 놀고나면 거만이요 금광은광 좋다해도 한번
개면 거뿐이니<담배타령>

③현대시

소녀의 마음은 봄잔디 풀!
그는 밟으면 으크러지고
그는 불대면 터진다.

소녀의 마음은 유리 풍경
그는 바람 부딪치면 울리고
그는 내던지면 깨진다.

<소녀의 마음>(황석우, 1895 - 1958)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산 너머 남촌에는>(김동환, 1901 - ?.)

①의 속담 ‘아버가 그르면 자식이 담논법ियो, 옷물이 흐리면 아리물도 흐리지’에서는 ‘--이/가 -하면 --이/가 -하다’는 동일한 문장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앞구에 쓰였던 주격 조사 ‘-이’와 어미 ‘-면’이 뒷구에 반복되며 4음보율을 이루고 있다. ‘메구 나면 상두군, 들구 나면 초롱군’은 어미 ‘-면’으로 인해 동일한 문장 패턴이 반복을 이루어 동일한 음수율과 음보율을 보이는 사례다. 앞구의 ‘0구 나면 00군’이라는 구조가 뒷구에 그대로 반복됨으로서 음위율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못되면 조상에 탓시오, 잘되면 제복이라지’와 ‘종을 부리라면 종에 종 노르슬 하고, 먼길을 가자면 소두보구 말두보지’에서도 같은 문장 패턴을 이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리언사총』에서 활용된 전통적인 운율 패턴은 ②의 가사에서도 그대로 발견할 수 있어서 속담이 전통 시가와 운율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음보 4·4조로 정형화된 가사는 음보율과 음수율 그리고 문장 패턴의 반복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짧은 문장 구조로 이루어진 속담이 다양한 운율적 장치를 통해 언어의 압축미와 운율미를 살렸듯이 가사 역시 제한된 음절수와 짧은 문장 구조로 인해 속담의 표현 방식과 운율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속담의 연원

과 사용된 시기가 개별 시가 장르의 경우보다 훨씬 오래되고 길었기 때문에 속담의 운율적 장치를 개별 시가가 흡수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우리 구비 문학에서의 운율적 장치가 현대시에 계승되고 있는 사례를 ③에서 찾아보자. <소녀의 마음>의 시행은 ①의 속담에서와 같이 동일한 문장 패턴 반복을 통한 음보율, 음수율, 음위율을 보인다. 현대시와 속담의 결정적인 차이는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의 작가성이라 할 수 있는데, 속담은 이미 관습적으로 굳어진 표현을 수용하여 사용하는 방식인 것에 비해 현대시는 그러한 표현과 내용의 제약 없이 작가가 원하는 대로 운율적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리언사총』의 작가가 이미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속담들을 운율적 공통소에 따라 진주알을 엮어 목걸이를 만들 듯이 꿰어내고 있는 것은 매우 놀라운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산 너머 남촌에는>의 시행(‘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은 완벽한 현대시의 음수율과 음보율을 보이면서도 속담과 가사에서 사용했던 ‘--하면 ---’라는 문장 패턴과 전통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다. 앞서 본 ‘메구 나면 상두군, 들구 나면 초롱군’과 ‘못되면 조상에 탓/ 잘되면 제복/에서와 유사한 운율 패턴이 재현되었다.

위의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조선조 언중들의 언어생활 속의 운율(①)이 전통 시가(②)의 운율로, 다시 현대시의 운율(③)로 전승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초기 현대시에서의 운율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통적 운율에 기반을 둔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나오며

20세기 초 일제의 강점이 이루어진 시기에 한국 시의 출발은 항상 일본 문학의 영향 관계에서 설명되어 왔다. 특히 음수율론이 그러한데 이

는 일본에서 근대 문명을 수학했던 많은 조선인 엘리트들이 하이쿠와 같은 일본 시의 운율 체계를 조선의 시에서 찾으려 하거나, 구현하려고 했다는 류의 설명과 관련된다. 하지만 『俚諺四叢』에는 그러한 외래적 영향과 무관하게 이미 한시의 작시 관습을 좇아 글자수를 맞추고, 운을 맞추며 대구를 만들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실험이 이미 이루어졌다. 다만 그것이 본격적인 시라고 볼 수 없는 속담 등의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으나 전통 운율을 개인 작가의 의도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했다는 점에서는 현대 자유시에서의 자유율 기조와 어느 정도 같은 층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대를 가진다. 첫째, 한국의 시 운율에 대한 자생적인 이론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음수율와 음보율론은 외래적 운율론인데 본질적으로 외국 시의 시형에서 유래한 운율론이 우리 시의 운율을 온전히 설명해 줄 수 있느냐는 생래적 한계가 있다. 『俚諺四叢』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자생적인 운율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우리 시가 가진 운율적 특성들을 보다 이론화시키는 데에 보탬이 될 것이다. 둘째, 속담이나 교훈(계몽 또는 교술 등) 시가가 모두 암기를 전제로 그 문장의 구조가 매우 정교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운율 장치가 전승자의 기억의 용이성을 위해 기능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암송과 운율 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 『俚諺四叢』이 아들의 조선어 교육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저작되었다는 서문에 근거하자면, 저자 역시 이 책의 목적을 교육에 두고 암기의 편의를 위한 장치로 두운과 각운 그리고 여러 가지 문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한국 시가의 운율론은 이제까지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에서 각각 그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 현대시 운율론 연구자들은 프랑스의 시학에 더 관심을 두고 초창기 현대시에 대해서 연구 중이다. 그 또한 당대 시인

들의 시학적 관심을 반영한 연구이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는 그런 연구와 병행하여 전통적 운율이 어떻게 현대시에 접맥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통적 운율의 전승 문제는 앞으로 현대시 연구자와의 협업이 더욱 요구되는 연구 분야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ABSTRACT]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Rhythm of Chosen people
in <俚諺四叢> and Its Transmission

Park, Kyung-Woo(Yonsei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consciousness of rhythm of the Joseon people in the lexical sequence and proverbs which are seen in 《Liensachong(俚諺四叢)》, a collection of language materials compiled by a rural scholar in 1911, and examined whether they were related to the rhymes between traditional poetry and early modern poetry. Based on analyzing all the metrical phenomena of the materials studied, various metrical patterns were detected, all of which were identified as 19 in the lexical collection items, and a total of 102 metrical patterns were investigated in the proverbs collection items. In this paper, based on the reasoning that these metrical phenomena lead from proverbs to traditional poems, and to early modern times, the early modern poems were also interpreted as a strong reflection of the prosody in the language life of the masses. In conclusion, the research results of the paper emphasized that the rhymes in modern Korean poetry are not understood by Western rhythmic theory, but are related to the language life-style of the Joseon people.

key word : Literary convention, Proverbs, Meter, Syllabic Meter, Foot Meter

[참고문헌]

□ 기본자료

『俚諺四叢』

□ 단행본

金億, 「詩形の 音律과 呼吸」, 『泰西文藝新報』 제14호, 1919.1.12.

金思燁, 『俗談論』, 大建出版社, 1953.

김소운, 『朝鮮口傳 民謠, 諺文集』, 第一書房, 1933.

성기옥, 『한국시가 율격의 이론』, 새문사, 1982.

□ 논문

권혁운, 「한국 현대시의 운율 연구」, 『어문논집』 57집, 민족어문학회, 2008, 233-260면

김동언, 「『이언사총(俚諺四叢)』과 19세기 후기 황해도 방언」, 『한국어학』 25호, 한국어학회, 2004, 121-159면.

박슬기, 「최남선의 신시(新詩)에서의 율(律)의 문제」, 『어문학』, 한국근대문학회, 2010, 191-217면.

朴仁基, 「한국 현대시와 자유시론」, 『國文學論集 - 檀國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6호, 단국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9, 385-391면.

李啓松, 「歌辭文學과 韻律의 相關性」, 『國語國文學 論文集』 12집, 東國大學校 국어국문학부, 1983, 77-86면.

이지엽, 「현대시와 현대시조의 소통」, 『批評文學』 41호, 한국비평문학회, 2011, 321-352면.

장경현, 「문어/문어체·구어/구어체 재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어 의미학』 13, 한국어의미학회, 2003, 143-166면.

趙載潤, 「韓國俗談의 構造分析研究」, 高麗大 博論, 1988.

최태옥, 『리언사총(俚諺四叢)』의 속담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 14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8, 299-324면.

최범훈, 「俚諺四叢 解題」, 『韓國文學研究』 1집, 경기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4, 169-172면.

접수일 : 2019. 08. 04 총평일 : 2019. 08. 15 게재확정일 : 2019. 08. 21